

『개역개정』의 개정을 위한 번역 제안 - 히브리서 -

조재천*

1. 히브리서 1:2: …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필자는 별도의 연구에서 동사 ‘말미암다’와 그것의 파생어들이 『개역개정』 신약성서에 사용된 용례 전체를 국어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분석했다.¹⁾ 필자가 그 연구에서 밝힌 사실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말미암다’와 그 파생어들은 현대 국어 문어체와 구어체에서 모두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국역 성서 및 그와 관련된 기독교 서적 이외에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용례가 극히 드물다. 즉, 이 낱말은 오로지 성서에서만, 그리고 기독교인들에서 의해서만 사용되는 분파적 특수 용어(sectarian jargon)이다.

둘째, 이 낱말은 그리스어 전치사 $\delta\iota\alpha$ 를 비롯한 다른 몇 가지 전치사, 그리고 기원이나 이유를 표현하는 다른 낱말들의 번역어이다. 본래 원어에서 세밀하게 구분되어 표현된 의미를 ‘말미암다’라는 하나의 말로 옮기는 바람에 성서 원문의 의미를 불필요하게 모호하고 다의적으로 만든다.

셋째, 이러한 의미의 모호성, 다의성은 하나의 전치사에 심오한 신학적 개념을 담아 전달하는 신약성서의 수많은 문장의 의미를 모호하고 다의적

* 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전주대학교 신약학 조교수. jcho@jj.ac.kr.

1) 조재천, “『개역개정』 신약에서 번역어로서 ‘말미암다’의 통사론적, 의미론적 적합성 검토(1)”, 『신약연구』 18:3 (2019), 229-263; 조재천, “『개역개정』 신약에서 번역어로서 ‘말미암다’의 통사론적, 의미론적 적합성 검토(2)”, 『신약연구』 19:1 (2020), 7-44.

으로 만듦으로써 신학적 오해와 오류를 유발한다.

결론적으로, 재개정되는 국역 성서에서 ‘말미암다’와 그 파생어들을 그 문맥과 원문의 의미에 적합한 다른 번역어들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장에서 $\delta\iota\acute{\alpha}$ 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아들이 동참, 동역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전치사이다. 이유, 기원 등의 의미와 무관하며, 여기서는 ‘도구, 매개’의 의미에 가장 가깝다. “그로 말미암아”의 대체 번역어로 ‘그를 통해’를 제안한다. 이 구절뿐 아니라 히브리서, 그리고 신약 전체에서 ‘말미암다’와 그 파생어의 모든 용례의 재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²⁾

2. 히브리서 1:4: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 문장은 이유를 표현하는 것처럼 읽힌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유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문에 $\tau\omicron\sigma\omicron\upsilon\tau\omega \dots \acute{\omicron}\sigma\omega \dots$ 가 이끄는 문장은 이유를 표현하는 구문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 비례하는 양이나 정도를 표현하는 상관 관계대명사 구문이다. 또한 우리말 번역어 중 “더욱 아름다운”은 부정확하다. 그것에 상응하는 원어 $\delta\iota\alpha\phi\omicron\rho\acute{\omega}\tau\epsilon\rho\omicron\varsigma$ 에 미적 개념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³⁾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개정 번역을 제안한다. ‘그가 물려받은 이름이 뛰어난 그만큼 그는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게 되셨느니라.’

3. 히브리서 1:6: 또 그가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 오게 하실 때에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신학적 추론을 일으키는 번역이다. 히브리서에서 부사 $\acute{\alpha}\lambda\lambda\iota\nu$ 이 구약 인용구가 이어지는 단락 안에서 쓰일 때(히 1:5; 2:13), 특정한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즉, 히브리서 저자는 앞에서 구약 성서 구절을 인용하고 나서 ‘다시’ 다른 구약 성서 구절을

2) 총 28개(1:2; 2:9, 10; 4:6; 5:7; 6:12, 18; 7:9, 11, 21, 23; 9:11, 14, 15; 10:10, 28, 38; 11:3, 7, 12, 18, 39; 12:11, 15, 28; 13:9, 15, 21).

3) 히 8:6에서도 『개역개정』은 같은 단어를 “더 아름다운”으로 번역했다. 이 구절과 연동하기 위해서 그것도 ‘(더) 뛰어난’이라고 바꾸어야 한다.

인용하고 있다. 기존 번역은 “다시”가 ‘들어오다’를 수식하면서, 예수의 성육신이 초림이 아닌 재림이라고 표현한 셈이 되었다. “다시”의 위치를 옮겨서 개정 번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한편, 그가 다시 말씀하시길, 만아 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4. 히브리서 1:7: …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원문의 의미를 오해하게 만드는 번역이다. 동사 ποιέω를 ‘삼다’로 번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어떤 지위나 직책에 임명했다는 의미처럼 들린다. 문맥상 그런 의미는 불가능하다. 히브리서 저자가 칠십인역 시편 104:4를 인용한 목적은 천사들의 존재와 속성이 가변적이고 일시적임을 확인함으로써 아들의 영원성, 영존성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삼다’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개정 번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이 되게,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이 되게 하시느니라.’

5. 히브리서 1:9: …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원문에 부합하지 않는 번역이다. ‘주를 … 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에 상응하는 서술어(동사)가 원문에 없다. 전치사구 παρά τοὺς μετόχους σου가 있을 뿐이다. 전치사 παρά에 하나의 동사적 의미까지 부여해서 번역하는 것은 무리다. 이 전치사구를 바로 앞의 동사 ‘기름붓다’를 수식하는 부사구로 보는 것이 그리스어 구문상 자연스럽다. 그래서 개정 번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동류들을 제치고 그대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도다.’

6. 히브리서 1:12: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

원문에 부합하지 않는 번역이다. 동사 ἐλίσσω는 ‘둘둘 말다’, ‘감다’라는 의미이고 περιβόλαιον은 옷 중에서도 겹옷을 가리킨다. 하나님(아들)의 영

원성, 영존성에 대비되는 피조 세계의 가변성, 소멸성을 표현하는 맥락에서 ‘의복을 갈아입는’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가? 오히려 다음과 같이 번역해야 한다. ‘당신은 그것들을 겉옷처럼 맡아 치우시고 …’

7. 히브리서 1:14: …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원문에서 서로 다른 두 단어를 동일한 우리말 단어 ‘섬기다’로 옮김으로써 저자의 의도를 왜곡할 수 있는 번역이다. 앞에 쓰인 형용사 λειτουργικός는 동사 λειτουργέω에서 파생했는데, 그 동사는 구약(칠십인역) 레위기에서 거의 항상 성소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즉 예배하는 행위를 표현하고 신약에서도 대체로 제의적, 예전적 맥락에서 쓰인다.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다. 반면, 문장 후반부에 나온 명사 διακονία는 좀 더 일반적인 봉사나 사람을 돕는 행동을 뜻한다. 이 두 단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또한, 전치사 διὰ를 ‘위하여’로 번역한 것은 어색할 뿐 아니라 우리말 어법상 불필요하다. ‘~를 위하여 섬기다’와 ‘~를 섬기다’는 아무런 의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원문에는 ‘천사’에 상응하는 명사가 없다. 그저 πάντες가 있을 뿐이다(그것이 천사를 가리킬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개정 번역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그들 모두는 예배하는 영들로서, 구원을 상속하게 될 이들을 섬기라고 보내지지 않느냐?’

8. 히브리서 2:10: …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번역이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곧 그들의 구원의 ἀρχηγός이다. 이 명사는 ἄρχω와 ἄγω, 두 동사에서 파생했다. 어원적으로 ‘창시자’라는 번역도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바로 앞에 ‘이끌어 들어가게 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선도자’, ‘선구자’가 더 적합하다.

4) 총 15회 용례 중 10회(히브리서에서의 용례 6회 모두)가 그렇다(눅 1:23; 행 13:2; 롬 15:27; 빌 2:17; 히 1:7, 14; 8:2, 6; 9:21; 10:11).

9. 히브리서 2:12: …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인용구의 원 문맥에 맞지 않는 번역이다. 시편 22편에서 시인(혹은 칠십인역 번역자)이 ‘교회’를 의도하면서 ἐκκλησία라는 단어를 썼을 리가 만무하다.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 ‘내가 주를 회중 가운데에서 찬송하리라.’

10. 히브리서 3:1: …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

원문에 부합하지 않는 번역이다. 명사 ὁμολογία는 어떤 사상이나 인물에 일치, 부합, 동의하는 말을 뜻하며 특히 그러한 동의를 공적으로 진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도리(道理)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길”이다. 원어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을 고려할 때 ὁμολογία가 이런 의미를 지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른 최근 국역들과 대부분 영역본이 사용한 “고백”(confession)이 적절한 번역어이다. 4:14에도 같은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11. 히브리서 3:5: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

원문에 부합하지 않는 번역이다. 하나님의 발화 행위를 항상 존대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와 같이) 번역하는 『개역개정』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분명 ‘장래에 말하다’의 주어는 모세이다. 하지만 원문에는 이 부분이 미래 수동태 분사이다(λαληθησομένων). 신약에서 행위자가 명시되지 않고 수동태만 나올 때 대체로 ‘신적 수동태’로서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나님을 주어로 간주해서 그 분사를 다시 번역해야 한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

12. 히브리서 3:14: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원문의 단어와 문장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번역이다. 우선 구문을 보자면,

이 문장은 접속사 γάρ로 시작하는 이유 표현 문장인데 이것이 번역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개역개정』이 원문의 어순을 뒤집는 바람에 13절과 14상반절의 인과 관계는 완전히 묻혀 버렸다. 후반부가 『개역개정』의 전반부에 번역되어 있고, 원문의 전반부가 『개역개정』에서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로 번역된 μέτοχοι τοῦ Χριστοῦ에 개정의 여지가 있다. 이 번역은 우리말 어법상 혼동을 자아낸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는 의미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딘가에 참여한다는 의미인가? 『개역개정』 번역 그 자체로는 후자의 의미일 텐데, 그렇다면 그 참여의 대상은 무엇인가?

이러한 혼동은 명사 μέτοχος에 결합된 속격 구문의 두 가지 통사적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몽뚱그린 데 기인한다. 즉, 주어적 속격과 목적어적 속격 중 하나를 택하지 않고,⁵⁾ 그 둘을 합쳐버린 것이다. 주어적 속격이라면 ‘그리스도의 동료’, ‘그리스도의 동류’가 되고 목적어적 속격이라면 ‘그리스도를 함께 받은 자’, ‘그리스도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텐데, 그 둘을 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기묘한 번역이 되었다.

13절과의 인과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여기서 속격은 주어적 속격 혹은 목적어적 속격 둘 다 가능하다.⁶⁾ 다만, 이 구절에 가까운 3:1에서 ‘μέτοχος+속격’을 목적어적 속격으로 취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번역했으므로 여기서도 그와 같이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 번역을 제안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함께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13. 히브리서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원문의 인접 문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신약성서 전체의 신학적 틀에 끼워 맞춰진 번역이다. 신약성서만이 아니라 더 폭넓게 그리스어 문헌을

5) μέτοχος에 속격이 이어지는 구문은 히브리서에서 네 번 더 사용되는데(1:9; 3:1; 6:4; 12:8), 1:9(시 44:8)에서만 주어적 속격으로 ‘동류’, ‘동료’라는 의미이고, 나머지 세 곳(3:1; 6:4; 12:8)에서는 목적어적 속격으로 ‘공동소유자’, ‘함께 받은 자’를 뜻한다.

6) 여러 영역 성서에 이 두 가지가 고르게 나타난다. “partners/companions of Christ” (ISV, HCS, NRS, NET); “share in Christ” (ESV, NIV); “partakers of Christ” (NAS, KJV).

접해 본 사람은 ὁ λόγος가 단지 말, 말씀이라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이성, 판단력, 계산, 설명, 해명 등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며, 그 내용은 *LSJ*나 *BDAG* 같은 표준 사전(*lexica*)에도 나와 있다. 하지만, 저 유명한 요한복음의 서막을 비롯해서 신구약성서 전반에 걸쳐, ὁ λόγος에 τοῦ θεοῦ가 곧바로 이어지면, 거의 항상 하나님의 발화 행위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발화된 언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처럼 성서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신학적 관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이 워낙 강력해서, 번역자들이 ὁ λόγος τοῦ θεοῦ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구절의 ὁ λόγος τοῦ θεοῦ를 번역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실은, 이 구절과 하나의 의미 단락을 이루는 13절 끝의 ὁ λόγος이다. 이 단어는 『개역개정』에 “결산”, 다른 역본들에 “해명”, “심판” 등으로 옮겨졌다. 영역에는 ‘결산’과 ‘해명’의 뜻을 모두 가질 수 있는 ‘give/render an account’라는 표현이 쓰였다. 하지만 어느 역본에도 13절의 ὁ λόγος가 ‘말’ 혹은 ‘말씀’이라고 번역되지 않았다. 13절 ὁ λόγος의 빛 아래에서 12절 ὁ λόγος를 읽을 수는 없을까? 게다가 문맥상 12절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은 꽤 어색하다. 11절에 표명된 히브리서 저자의 숨은 염려, 즉 혹시라도 그의 청중 가운데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넘어질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어지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판단’ 혹은 ‘감찰’이 적합하다.

14. 히브리서 4:13: …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원문에 있는 한 단어를 누락한 번역이다. 원문에 접속사 *καί*를 사이에 두고 형용사 *γυμνός*와 병렬된 분사 *τετραχηλισμένα*가 『개역개정』에 번역되지 않았다. 이 단어를 번역에 포함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 ‘만물이 벌거벗겨지고 항복한 채로 드러나느니라.’

15. 히브리서 5:2: … 무식하고 미혹된 자 …

원문 문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번역이다. 사전적으로 *ἀγνοέω*는 ‘알지 못하다’라는 의미인데, 경우에 따라 ‘무식하다’라는 형용사처럼 번역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대제사장과의 그의 제의 활동에 대해 서술하는

맥락을 고려하면 ἀγνοῶ는 비하적 의미의 ‘무식한’이 아니라 속죄신학과 관련된 기술적인 의미를 띤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레 5:18; 22:4)와 의도하지 않은 죄(레 4:2, 13, 22, 27; 민 15:24, 27-29)는 제사장을 통한 속죄 제사로 사해될 수 있지만 ‘뻔뻔하게’ 죄지은 사람은 사죄 받을 길이 없고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민 15:30-31). 그래서 개정 번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알지 못하고 미혹된 자’

16. 히브리서 5:7: …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원문의 의미에서 벗어나거나 신학적 고려가 지나치게 개입된 번역이다. 기도의 맥락에서 ‘심한 통곡’이 어색할 뿐 아니라 원문의 명사구 μετὰ κραυγῆς ἰσχυρᾶς의 가능한 의미 범위를 벗어난다. ‘강한 외침’ 혹은 ‘큰 소리’라고 번역하더라도 충분히 원문의 의미가 표현된다.

또 다른 번역어 ‘경건하심’은 εὐλαβεία를 옮긴 것인데, 이 명사는 어원상 ‘조심’, ‘주의’, ‘경계심’ 등을 뜻하고, 일반적으로는 ‘두려움’ 그리고 특수하게는 신적인 대상에 대해 가지는 ‘경외심’을 뜻할 수 있다. ‘경건하심’은 사전적으로 가능한 번역이지만 문맥상 부적절하다. 인격적 속성 혹은 덕목이라 할 수 있는 ‘경건하심’이 앞 문장에 표현된 기도의 감정적인 요소와 어떻게 어울리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응답 받은 기도의 조건으로서 범주에 맞지 않는 개념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품는 감정적 상태를 생각한다면, ‘경외심’ 혹은 ‘두려움’이라는 번역이 적절할 것이다.

17. 히브리서 5:14: …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원문의 구문에서 벗어난 번역이다. 우선 14하반절 전체는 상반절에 언급된 ‘장성한 자’를 수식하고 있고, 하반절 맨 첫 자리에 전치사구 διὰ τὴν ἔξιν이 나온다. 명사 ἔξις는 동사 ἔχω(“가지다”)에서 파생했고 ‘오랫동안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 몸 혹은 마음에 밴 상태나 능력’을 의미한다. 이에 상응하는 하나의 우리말 단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능력의 습득에 있어서 ‘실행’, ‘실천’, ‘연습’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개역개

정』은 이 전치사구 전체를 번역에서 누락했다. 누락의 이유가 불분명하므로 개정 번역에서 살려내는 것이 좋겠다.

다음으로 개정을 고려해야 할 부분은, 『개역개정』이 “지각”이라고 옮긴 그리스어 명사 τὸ αἰσθητήριον이다.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 ‘감각 기관’(organ of senses)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그것의 복수형이 쓰였다.⁷⁾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지각(知覺)’은 첫 번째로 “알아서 깨달음. 또는 그런 능력”이라고 정의되므로 τὰ αἰσθητήρια의 번역어로 적당하지 않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반영해서 다음과 같은 개정 번역을 제안한다. ‘그들은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훈련된 감각을 지니고 있느니라.’

18. 히브리서 6:11: …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원문의 의미에서 벗어난 번역이다. 우선 『개역개정』이 “풍성함”이라고 번역한 명사 πληροφορία와 그것의 동사형 πληροφοριαέω는 어원(πληρώ와 φέρω)으로 보나 신약과 초기 기독교 문헌에서의 용례로 보나 ‘성취’, ‘실현’, 혹은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 정도의 의미이다(『개역개정』 외 여러 국역, 영역 성서들도 그렇게 옮겼다). “풍성함”이라는 번역어는 지지받기 어렵다. 또 원문에는 “이르러”에 해당하는 동사가 없고 아마 전치사 πρὸς가 그 상응어일 텐데, 이 전치사는 결과보다는 목적으로 새겨야 한다.

또 다른 전치사 구 ἄχρι τέλους는 그것이 수식하는 단어가 무엇인지에 따라 ‘끝내 소망이 성취되도록’ 혹은 ‘소망이 성취되도록 끝까지 열성을 보여주기를’로 번역될 수 있다. 『개역개정』은 전자를 따른 셈이지만 국역, 영역 중 다수는 후자를 따랐다. 이상을 종합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 번역을 제안한다. ‘… 너희 각자가 소망의 확실함을 위해 끝까지 같은 열성을 보여주기를 …’

19. 히브리서 6:18: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

이 번역의 모호함은 주로 우리말 표현의 어색함에 기인한다. ‘하나님이

7) LSV는 몇몇 그리스 철학자들의 문헌과 함께 4마카 2:22를 용례로 제시하며, 이 단어의 반대말로 ἡ διανοία를 지목한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의 문장구조를 바꾸어 쓰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거짓말 할 수 없다'가 되어 그 자체로 모순이다. 문제의 원인은 그리스어 관계대명사 구문이다. 그리스어 관계대명사가 사격(斜格)이거나 전치사와 결합해 있을 때 그것이 품고 있는 논리적 관계를 우리말의 관형절 구문으로 옮겨내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는 관계대명사 대신 그 선행사를 두 번 사용해서 문장을 나누어 서술하는 것이 좋다.

『개역개정』 번역문의 혼동을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는 “사실”이라고 옮겨진 명사 πράγμα를 다른 말로 바꾸는 것이다. 이 명사는 ‘일’, ‘행동’, ‘사건’, ‘상황’, ‘개념’ 등 그 뜻이 포괄적이지만, 여기서는 앞서 15절 이하에서 다루고 있는 약속과 맹세라는 두 행동, 또는 사건을 가리킨다. 이상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개정 번역을 제안한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것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해 ...’

20. 히브리서 7:24: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원문 단어의 의미를 오해했거나 우리말 어법에 어긋난 번역이다. 여기 사용된 피동사 ‘갈리다’의 능동형은 ‘갈다’인가 아니면 ‘가르다’인가?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 ‘갈리다’의 의미는 여덟 가지인데, 그 중 ‘갈다’의 피동형(“이미 있는 사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이 세 번째, ‘가르다’의 피동형(“쪼개지거나 나뉘어져 따로따로 되다”)이 두 번째 의미로 제시되어 있다.

원문의 형용사 ἀπαράβατος는 동사 παραβαίνω(‘위반하다’, ‘넘어가다’)에서 파생했으며, ‘위반될 수 없는’, ‘소멸할 수 없는’, ‘불변하는’ 등을 뜻한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말 동사는 ‘갈다’이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이 문장의 ‘갈리다’를 ‘가르다’의 피동형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히브리서의 문맥상 제사장 직분이 수많은 대제사장들에 의해 나뉘어 수행되는 현실과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 나뉘지 않은 단일한 방식으로 제사장 직분이 수행되는 현실이 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갈리다’ 때문에 생기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 번역을 제안한다.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변하지 않는 제사장 직분을 지니시느니라.’

21. 히브리서 9:4: 금 향로와 …

이 번역에는 원문 단어의 폭넓은 용례와 문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칠십인역에서 ‘분향제단’은 *θυσιαστήριον*이며,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θυμιατήριον*이라고 표기한다. 히브리서의 이 단어는 에스겔 8:11과 역대하 26:19에서 향을 담아 이동할 때 사용하는 ‘향로’를 지칭했다. 그러나 히브리서와 마찬가지로 펠로(*Heir* 22; *Moses* 2.94, 101, 105; *Special Laws* 1.231), 요세푸스(*Ant.* 3.147, 198; *J.W.* 5.218) 등은 ‘분향제단’을 이 단어로 표기했다. 히브리서 9장의 맥락에서 이 단어는 고정된 성막 내 가구들 중 하나를 묘사하고 있으므로 이동식 향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금으로 된 분향제단과 …’로 개정해야 한다.

22. 히브리서 9:7: …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

원문의 사전적 의미, 그리고 구약 성서 용례에 나타난 신학적 함의를 놓친 번역이다. 복수 명사 *ἀγνοήματα*(‘알지 못함’, ‘부지불식[不知不識]’)의 동계어 동사 *ἀγνοέω*는 히브리서 5:2에 쓰였고, 그 구절의 번역을 앞에서 이미 검토했었다. 구약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 단어가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이나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죄라는 지각이나 의도가 없음을 묘사하는 전문 용어(*terminus technicus*)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여기 “허물”은 ‘모르고 지은 죄들’이라고 고쳐야 한다.

23. 히브리서 9:10: …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말겨 둔 것이니라

이 번역에는 시대착오(*anachronism*)의 위험이 담겨 있다. 명사 *διόρθωσις*는 신약성서에서 오직 여기 출현하는 단어(*hapax legomenon*)로서, ‘곧게 함’, ‘바르게 만들’ 등을 의미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개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서 *διόρθωσις*가 지닌 ‘올바름’, ‘곧음’이라는 개념을 표현하지 못한다. 더구나 이 단어는 한국어 독자들에게 종교개혁이라는 특정 사건을 연상시킨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새 언약’ 혹은 그리스도의 천상적 제사가 마치 종교개혁과 같은 사건

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히브리서의 신학이나 원문의 의미와 거리가 멀다.

또 “예법”이라고 번역된 δικαιώματα와 “맡겨 둔”이라고 번역된 ἐπικείμενα, 둘 다 어색하게 번역되었다. 전자는 신약 전체에 걸친 10회의 용례를 종합해 볼 때 ‘규정’, ‘규례’, ‘명령’ 등이 적절한 번역이다. 그것을 수식하는 분사 ἐπικείμενα는 중간대 디포넌트로서 신약에 총 7회 쓰였고, ‘~에 놓여 있다’, ‘~한 상태로 있다’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종합적으로 개정 번역 제안은 다음과 같다. ‘… 바르게 고쳐질 때까지 육체적 규정으로 존재한다.’

24. 히브리서 9:11: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

이 구절은 최신 비평 본문이 아닌 140여 년 전에 편집된 그리스어 본문에 따라 번역되었다. 『개역개정』은 그것의 저본인 구역(『성경전서』, 1911)이 대본으로 삼았던 <개정 그리스어 성경>(1881)에 따라 τῶν μελλόντων ἀγαθῶν을 번역했지만 오늘날 표준 비평 본문인 네스틀레 알란트 판(NTG)에는 그것 대신 τῶν γενομένων ἀγαθῶν으로 되어 있다.⁸⁾ 비평 본문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이라고 수정해야 한다.

25. 히브리서 9:22: …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본문에 의도되지 않은 신학적 의미가 번역에 담겨 있다. 명사 αἵματεκχυσία는 αἷμα와 χέω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후자의 의미는 ‘흘리다’가 아니라 ‘쏟다’, ‘붓다’이다. 전후 문맥과 히브리서의 주된 논증을 고려할 때, 이 단어는 레위기의 속죄 제의의 한 단계로서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 아래에 쏟거나 따로 그릇에 담아 제단 뿔에 바르거나 언약궤 위에 뿌리는 등의 행위를 표현한다. 『개역개정』의 ‘피흘림’은 ‘죽음’의 대유법적 수사로 이해될(즉,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런 의미는 원문에 갖든 히브리서 저자의 의

8) 류대영 등이 인용한 켄뮤어(A. Kenmure)의 편지에 따르면 『성경전서』의 번역자들이 사용한 저본은 1881년 판 <개정 그리스어 성경>이었다(*H KAINH ΔΙΑΘΗΚΗ. The Greek Testament with the Readings Adopted by the Revisers of the Authorized Version* [ed. E. Palmer; Oxford: Clarendon Press, 1881])이었다. 이것은 “옥스퍼드 판” 혹은 “파머 판”이라고도 불린다.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35-36.

도와 거리가 멀다. 개정 번역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 ‘… 그래서 피를 쏟지 않고서는 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26. 히브리서 11: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번역에는 원문 구문의 중요한 신학적 기능이 반영되지 못했다. *προσβύτεροι*를 “선진”이라고 옮길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문장의 서술어 *ἐμαρτυρήθη*는 수동태 동사인데 이것을 타동사 능동태 구문으로 옮긴 『개역개정』의 번역은 지나친 의역이다. 무엇보다 여기 수동태는, 위 히브리서 3:5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시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번역에서도 피동형으로 표현되는 게 좋다. 이것을 반영한 개정 번역은 다음과 같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언되었느니라.’

27. 히브리서 11:11: …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

이 문장은 원문의 구문에 의도된 의미와 다르게 번역되었다. 원문에서 사라에 대해 서술한 두 형용사 중 *στεῖρα*가 먼저 나오면서, 사라가 그 상태에서 임신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 다음 접속사 *καί*에 이어 새로운 구, *παρὰ καιρὸν ἡλικίας*가 따라 나온다. 즉, 이 문장의 논리와 생각의 흐름에 있어서, 불임과 고령은 인과관계가 아닌 병렬 관계로 서술된 것이다. 현대에나 고대에나 불임의 원인은 고령만이 아니며, 특히 사라의 경우 나이가 많아지기 이전부터 불임이었다. 따라서 *στεῖρα*의 번역어로서 ‘단산(斷産)했다’는 부적합하다. 원문의 어순과 문장구조를 고려한다면 『개역개정』의 번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 사라 자신도 불임이어서 임신할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했고 나이가 많았지만 …’

28. 히브리서 11:38: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

이 번역 문장 역시 원문의 구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원문에서 주어 “세상”이고 “이런 사람”은 서술어 *οὐκ ἦν ἄξιος*의 목적어이다. 이 형용

사는 ‘~할 가치, 자격이 있다’ 등을 의미하는데, 이 의미가 『개역개정』이 문장구조를 바꾸면서 사용한 ‘감당하다’라는 타동사로서는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다. 또한, 삽입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괄호는 원문에 없었던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괄호를 벗겨내고 이어지는 문장과 인과 접속사로 연결해 주면 논리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분명하게 표현될 수 있다. 이상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개정 번역을 제안한다. ‘세상은 그들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

29. 히브리서 12:16: 음행하는 자와 흑 …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문장에서 『개역개정』은 원문의 어순에 충실하지 않다. 원문에는 부정(不定) 인칭대명사 $\tau\iota\varsigma$ 가 문장 앞에 나오고 이어서 곧바로 두 형용사 $\pi\acute{o}\rho\nu\omicron\varsigma$ 와 $\beta\acute{\epsilon}\beta\eta\lambda\omicron\varsigma$ 가 접속사 $\eta\iota$ 로 이어져 있다. 그리고 나서 ‘에서와 같은’이라는 부사구가 이어진다. 이 구문을 자연스럽게 옮기면 ‘음탕하다’와 ‘망령되다’가 모두 에서에 대한 묘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역개정』은 “음행하는 자”를 “흑 …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로부터 완전히 구분했다. 에서의 ‘망령됨’이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이듯, 에서의 ‘음란함’도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이다. 구약성서에 언급된 대로 에서가 헷 족속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행동은(창 26:34-35) 그의 ‘음란함’의 방증일 수 있다.⁹⁾ 개정 번역으로 다음과 같은 번역이 가능하다. ‘아무도 에서처럼 음란하거나 망령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

30. 히브리서 12:20: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

이 문장은 원문의 단어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고, 그 결과 그 단어가 인접 문맥에서 지니는 중요성을 나타내지 못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에서 칠십인역 출애굽기 12:13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구절을 고스란히 따오지 않

9) 에서가 가나안 출신 여자들과 결혼한 행동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여러 제2성전기 유대 문헌들이 언급한 바가 있다. <회년서> 25:1, 7-8; 필론, *QG* 4.201; *Alleg. Interp.* 3.2; *Sacrifices* 81, 120, 135; *Worse* 45; *Migration* 15.

고 몇 낱말만 골라 엮어서 인용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들어가면”으로 번역된 $\theta\acute{\iota}\gamma\eta$ 이다. 동사 $\theta\iota\gamma\gamma\acute{\alpha}\nu\omega$ 의 가정법 형태인데 출애굽기 본문에는 같은 단어의 부정사 형태가 나온다. 이 동사는 기본적으로 ‘만지다’, ‘접촉하다’를 뜻하고, ‘들어가다’와 같은 장소 이동의 의미는 없다.

그렇다면 『개역개정』의 의역, “들어가면”을 하나의 가능한 번역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 $\theta\acute{\iota}\gamma\eta$ 는 반드시 ‘만지면’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이 구절이 속한 의미 단락의 첫 문장, 18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청중에게 그들이 도달한 곳은 ‘만질 수 있는’(ψηλαφωμένω) 곳이 아니라고 말했고, 바로 그 서술과 연결되어 짐승이라도 그 산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구약 구절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산에 들어가면”을 ‘그 산을 만지면’이라고 개정해야 한다.

31. 히브리서 12:21: …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 문장은 구약성서 인용문인데 인용된 문장과 함께 원 본문에 없는 내용이 마치 인용문인 것처럼 번역되어 있다. 칠십인역 신명기 9:19에서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후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회고하면서 “나는 매우 두려워했다”라고 말한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구절을 가감 없이 인용했다. 단, 히브리서 12:21 끝에 $\kappa\alpha\iota\ \acute{\epsilon}\nu\tau\rho\omicron\mu\omicron\varsigma$ 를 추가함으로써 모세가 처한 상황을 더욱 실감나게 표현했는데, 그 추가 부분은 신명기 본문에 없는 내용으로 히브리서 저자 자신의 서술이다. 이 점을 번역에서 명확히 구분해서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 번역을 제안한다.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다 하였고 몸을 떨었느니라.’

32. 히브리서 12:24: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원문에 없는 낱말이 번역문에 추가됨으로써 의도된 의미에서 벗어났다. 대부분의 국역과 영역 성서가 『개역개정』처럼 이 문장을 번역했고, 주석가들도 대부분 그렇게 했다. 이 번역에 기반해서 예수의 피와 아벨의 피를 비교해서 각각의 신학적인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졌

지만, 어느 것도 명쾌하게 이 구절의 의미를 밝히지 못했다. 이 지점의 주석적 난점인 “아벨의 피”는 정작 원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단지 *παρὰ τὸν Ἀβελ*로 되어 있을 뿐이다. 즉,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다면 ‘... 아벨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수정해야 한다. 이처럼 개정하고 나면 이 구절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진다는 주장이 김규섭 박사에 의해 개진된 바 있는데, 그 논증이 매우 설득력이 있다.¹⁰⁾

33. 히브리서 12:2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

이 번역은 그리스어의 관용적 표현을 살리지 못했다. 이 문장 끝에 있는 서술어 *ἔχωμεν χάριν*은 ‘감사하다’라는 관용적 의미를 지닌다. 대부분 국역과 영역 성서처럼 『개역개정』의 번역도 ‘감사드리다’라고 개정해야 한다.

(투고 일자: 2022년 6월 15일, 심사 일자: 2022년 7월 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8월 15일)

10) K. Kim, “Better Than The Blood Of Abel? Some Remarks On Abel In Hebrews 12:24”, *TynBull* 67:1 (2016) 127-136.